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경남^{1)*}, 이수민²⁾, 장여영²⁾, 전다혜²⁾, 정민주²⁾, 정지희²⁾, 조민희²⁾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1)*},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²⁾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young-Nam Kim^{1)*}, Soo-Min Im²⁾, Yeo-Yeong Jang²⁾, Da-Hye Jeon²⁾, Min-Ju Jeong²⁾
Ji-Hee Jeong²⁾, Min-Hee Cho²⁾

^{1)*}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Associate Professor1)

²⁾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Student

(Received November 16, 2020; Revised November 26, 2020; Accepted December 04, 2020)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ugust 03 to 30, 2020 for 4 weeks. The surve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220 students in grades 3-4 who were enrolled in 6 nursing departments located in P metropolitan city and G province, and hav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r=.455, p<.001$) and self-leadership($r=.539, p<.001$), and major satisfaction($r=-.337, p<.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r=-.380, p<.001$)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lf-leadership($\beta=.424, p<.001$)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study subj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beta=.170, p=.01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beta=.127, p=.047$), employment information($\beta=.122, p=.023$), major satisfaction($\beta=.137, p=.042$) in the order, these variables were found in the order of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40.2%.

Conclusion: Therefore, in order to help nursing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strategy to provide a variety of employment information and a strategy for nursing intervention that can improve self-leadershi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s required.

Keyword: Behavior, Career, Nursing, Preparation,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fairyc@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¹⁾ 진로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²⁾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³⁾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당할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쉽게 이직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42.7%로 전체 간호사 평균 이직율 13.9%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업무 부적응⁵⁾, 직업적 목표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⁴⁾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다양한 임상현장의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동안 구체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⁷⁾ 그래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견해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형성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의 역할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념과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주며 졸업 후의 진로뿐 아니라 직업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⁹⁾. 간호대학생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¹⁰⁾.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하는 과정으로¹¹⁾, 만족스러운 현장실습경험은 진로준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낮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에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리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개념의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¹³⁾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표 달성,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와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며¹⁴⁾,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은 관계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¹⁵⁾.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대학생활 가운데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03일부터 8월 30일까지 4주간 P광역시와 G도에 위치한 6개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총 2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d)=.25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80, 변수 5개로 계산했을 때 총 200명이 산출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하였고,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220부의 자료 모두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¹⁷⁾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¹⁸⁾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Han 등¹⁸⁾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다.

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Kim과 Ha¹⁹⁾가 작성한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학과 만족도' 20문항, '학교 만족도' 7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Kim과 Ha¹⁹⁾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²⁰⁾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²¹⁾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와 Kim²²⁾이 수정·보완한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Cho와 Kang의 연구²¹⁾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

3.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와 Sims²³⁾가 개발하고 Yang²⁴⁾이 수정·보완한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행위적 전략' 15문항, '인지적 전략' 3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²⁴⁾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3.5.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³⁾이 개발한 도구로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 3문항,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 6문항,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 2문항,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의 구입 및 활용’ 5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의 연구³⁾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입(Enter)방식 Multiple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의 평균은 22.50±3.09세이고, 20-23세가 206명(93.6%)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204명(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4학년이 201명(91.4%), 3학년이 19명(8.6%)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42명(64.5%)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하고 싶은 곳은 대학병원이 128명(58.2%)로 많이 응답하였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가 124명(56.3%)로 가장 많았고, 취업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이 160명(72.7%)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t=2.717, p=.012$), 종교($F=6.735, p<.001$), 취업하고 싶은 곳 ($F=2.307, p=.035$), 간호학과 지원동기($F=3.077, p=.017$), 취업정보를 얻는 곳($F=4.843, p=.001$)의 그룹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종교는 천주교, 취업하고 싶은 곳은 외국간호사를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지원한 대상자들이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업정보를 얻는 곳은 서적이거나 기타 자료(가고 싶은 기관의 취업홍보 유인물, 리플렛 등)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20)

| Categories | | 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
| | | | M±SD | t/F (p) | Sheffe's |
| Age | 20-23 | 206(93.6) | 2.91±0.03 | 1.150 (.330) | |
| | M±SD | 24-30 | 9(4.1) | | |
| | 22.50±3.09 | 31-40 | 2(0.9) | | |
| | 40 ↑ | 3(1.4) | 2.55±0.38 | | |
| Gender | Man | 16(7.3) | 3.18±0.57 | 2.717 (.012) | |
| | Women | 204(92.7) | 2.88±0.41 | | |
| Grade | 3 | 19(8.6) | 2.96±0.53 | .633 (.528) | |
| | 4 | 201(91.4) | 2.90±0.42 | | |
| Religion | Christian ^a | 36(16.4) | 2.93±0.42 | 6.735 (<.001) | c>b>a,d |
| | Buddhism ^b | 24(10.9) | 3.09±0.54 | | |
| | Catholic ^c | 18(8.2) | 3.22±0.56 | | |
| | None ^d | 142(64.5) | 2.82±0.37 | | |
| Employment | University hospital ^a | 128(58.1) | 2.90±0.41 | 2.307 (.035) | f>c,a,b,c>d,e |
| | General hospital ^b | 35(15.9) | 2.89±0.52 | | |
| | Official ^c | 33(15.0) | 2.93±0.41 | | |
| | Industrial nurse ^d | 14(6.4) | 2.79±0.36 | | |
| | Health teacher ^e | 5(2.3) | 2.88±0.49 | | |
| | Foreign hospital nurse ^f | 2(.9) | 3.89±0.15 | | |
| | ETC ^g | 3(1.4) | 2.54±0.39 | | |
| Motive | Employment rate ^a | 124(56.3) | 2.86±0.33 | 3.077 (.017) | d>b>a,c |
| | Valuable job ^b | 35(15.9) | 3.04±0.55 | | |
| | Aptitude and interest ^c | 56(25.5) | 2.88±0.41 | | |
| | Stable workplace ^d | 5(2.3) | 3.11±0.80 | | |
| Employment information | Internet ^a | 160(72.7) | 2.86±0.02 | 4.843 (.001) | b,e>a,c,d |
| | Book ^b | 11(5.0) | 3.26±0.49 | | |
| | Friends ^c | 41(18.6) | 2.98±0.54 | | |
| | Institute ^d | 5(2.3) | 2.56±0.41 | | |
| | ETC ^e | 3(1.4) | 3.46±0.56 | | |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32±0.43점 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개념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3.93±0.50점, 사회적 인식 3.17±0.62점, 간호의 전문성 3.96±0.50점,

간호계의 역할 4.02±0.63점, 간호의 독자성 1.52±0.9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개념에서 간호계의 역할이 가장 높았고, 간호의 전문성,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55±0.50점 이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개념으로 학과만족도의 평균은 3.90±0.48점, 학교만족도는 3.20±0.62

점으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68±0.41점 이었다. 하위항목으로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3.99±0.60점,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83±0.50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3.33±0.54점,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85±0.50점,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40±0.85점,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3.65±0.60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환경, 실습내용, 실습평가, 실습시간,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88±0.43점 이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항목으로 행위적 전략은 3.71±0.48점, 인지적 전략은 4.05±0.59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전략이 행위적 전략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90±0.43점이었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항목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의 평균은 3.12±0.46점,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은 2.91±0.57점, 진로지도관련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는 2.59±0.68점,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구입 및 활용은 2.99±0.48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 가장 높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구입 및 활용,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진로지도관련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2]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20)

| Categories | M±SD | Min | Max |
|---|-----------|------|------|
|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 3.32±0.43 | 2.01 | 5.00 |
| Professional self-concept | 3.93±0.50 | 2.67 | 5.00 |
| Social consciousness | 3.17±0.62 | 1.20 | 5.00 |
| Nursing expertise | 3.96±0.50 | 2.33 | 5.00 |
| Role in nursing | 4.02±0.63 | 1.00 | 5.00 |
| Nursing independence | 1.52±0.98 | 1.00 | 5.00 |
| Major satisfaction | 3.55±0.50 | 1.91 | 5.00 |
| Department satisfaction | 3.90±0.48 | 2.25 | 5.00 |
| University satisfaction | 3.20±0.62 | 1.57 | 5.00 |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3.68±0.41 | 2.62 | 4.91 |
| Practice course | 3.99±0.60 | 2.67 | 5.00 |
| Practice contents | 3.83±0.50 | 2.00 | 5.00 |
| Practice guidance | 3.33±0.54 | 1.78 | 4.44 |
| Practice environment | 3.85±0.50 | 2.43 | 5.00 |
| Practice time | 3.40±0.85 | 1.00 | 5.00 |
| Practice evaluation | 3.65±0.60 | 2.00 | 5.00 |
| Self leadership | 3.88±0.43 | 2.73 | 5.00 |
| Behavioral strategy | 3.71±0.48 | 2.20 | 5.00 |
| Cognitive strategy | 4.05±0.59 | 1.33 | 5.00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2.90±0.43 | 1.63 | 4.00 |
| Action to understand yourself | 3.12±0.46 | 2.00 | 4.00 |
| Behavior to understand the job | 2.91±0.57 | 1.33 | 4.00 |
| Active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 2.59±0.68 | 1.00 | 4.00 |
| Purchasing and using tools to achieve the purpose | 2.99±0.48 | 1.20 | 4.00 |

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r=.4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r=.367, p<.001$), 전공만족도($r=.51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r=-.371,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r=.134, p=.047$), 임상실습만족도($r=.28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낮아지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r=.455, p<.001$), 셀프리더십($r=.539,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r=-.337, p<.001$), 임상실습만족도($r=-.38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20)

| Variables |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 Major satisfaction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Self leadership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 r(p) | r(p) | r(p) | r(p) | r(p) |
|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 1 | | | | |
| Major satisfaction | .482 (<.001) | 1 | | | |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367 (<.001) | .517 (<.001) | 1 | | |
| Self leadership | -.371 (<.001) | .134 (.047) | .289 (<.001) | 1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455 (<.001) | -.337 (<.001) | -.380 (<.001) | .539 (<.001) | 1 |

4.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94였고 공차한계는 0.616-0.97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36-1.47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beta=.424, p<.001$)가 가장 크게 의미있는 요인이었고, 간호전문직관($\beta=.170, p=.010$), 임상실습만족도($\beta=.127, p=.047$), 취업정보($\beta=.122, p=.023$), 전공만족도($\beta=.137, p=.042$)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40.2%이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20)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VIF |
|-------------------------------------|-------|------|---------|--------|-------|-------|
| Constant | -.317 | .270 | | -1.172 | .242 | |
| Self leadership | .425 | .058 | .424 | 7.314 | <.001 | 1.229 |
|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 .171 | .065 | .170 | 2.607 | .010 | 1.548 |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135 | .068 | .127 | 2.001 | .047 | 1.470 |
| Employment information | .055 | .024 | .122 | 2.287 | .023 | 1.036 |
| Major satisfaction | .118 | .058 | .137 | 2.050 | .042 | 1.625 |

adjusted $R^2=.402$, $F=30.47(p<.001)$, Durbin-Watson=1.69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취업하고 싶은 곳은 대학병원을 많이 응답하였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종교, 취업하고 싶은 곳, 간호학과 지원동기, 취업정보를 얻는 곳의 그룹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Jang과 Moon의 연구¹⁴⁾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나이, 학년, 취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²⁵⁾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4학년으로 진로준비행동이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적성과 취미가 맞아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일수록 진로탐색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²⁶⁾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후검정 결과 종교는 천주교, 취업하고

싶은 곳은 외국간호사를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지원한 대상자들이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업정보를 얻는 곳은 서적이거나 기타 자료(가고 싶은 기관의 취업홍보 유인물, 리플렛 등)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취업하고 싶은 곳이 외국이거나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이 더 높고 적극적이며, 취업정보는 가고 싶은 기관의 홍보서적이거나 유인물 등을 통한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은 3.32 ± 0.43 점으로 나타났는데, Kim과 Park의 연구²⁷⁾에서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93점, Jang과 Moon의 연구¹⁴⁾에서 3.80점, Yeom의 연구²⁸⁾에서 간호전문관은 평균 3.67점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하위 개념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3.93 ± 0.50 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 1.52 ± 0.9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소명 의식 등을 포함하며, 전문적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므로 교육과정 운영시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²⁷⁾, 간

호전문직관 교육에 있어서도 간호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55 ± 0.50 점으로 Jang과 Moon의 연구¹⁴⁾에서 3.89점, Kim과 Park의 연구²⁷⁾에서 4.05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같이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의 연구²⁹⁾에서 전공만족도는 평균 3.66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교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므로²⁹⁾ 추후 학년별로 전공만족도를 측정해 보는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68 ± 0.41 점으로 Lee등의 연구에서³⁰⁾ 평균 3.43점, Kim과 Lee의 연구에서³¹⁾ 평균 3.36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항목으로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3.99 ± 0.6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3.33 ± 0.54 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어,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실습지도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욱 실습지도교수와 임상현장 지도자와의 긴밀한 실습지도 교육의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88 ± 0.43 점으로, Kwon과 Choi의 연구³²⁾에서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셀프리더십이 높다³²⁾고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셀프리더십은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되는 개념으로 대학생들의 경험에 따라 학년이 증가될수록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¹⁴⁾.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90 ± 0.43 점으로 Moon과 Kim의 연구에서³³⁾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6점, Park과 Kim의 연구³⁴⁾ 2.68점보다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항목을 분석해 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 가장 높았고, 진로

지도 관련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나 진로지도 관련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진로준비를 도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4,30,34)}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¹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³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낮아졌는데, 자신의 전공에 보다 만족하는 학생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³⁰⁾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로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결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14,30)}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이 가장 크게 의미 있는 요인이었고,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취업정보, 전공만족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40.2%이었다. Jang과 Moon의 연구¹⁴⁾, Moon과 Kim의 연구³³⁾에서도 셀

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행동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이나 셀프리더십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다.¹⁶⁾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추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Jeon MR, Kim BW.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5;27(2):445-461.
2. Oh EJ.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4):31-58.
3.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311-333.
4. Im BM, Park JM, Kim MJ, Kim SY, Maeng JH, Lee LL, Kang KA.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urnover experience of novice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5;24(4):313-322.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4.313>
5.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1). 2010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of nurse staffing. Retrieved March 9, 2011, from <http://www.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6. Moon JY.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9;11:462-473.
DOI://doi.org/10.5392/JKCA.2019.19.11.462
7.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 16(1):14-23.
DOI:10.5977/JKASNE.2010.16.1.014
8. Jeon HO.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6;22(2): 171-181.
DOI:10.5977/jkasne.2016.22.2.171
9. Ch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5):2937-294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10. Son BH, Kim YM, Jun I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The Korean*

-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1;20:240-249.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4.313>
11. Won MR, Kim YJ.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University Life Research*, 2013;19(1):57-72.
 12. Lai H, Peng T, Chang F.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 in Taiwanese nursing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6;43(5): 581-588.
 13. Kim JI.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 19(1): 574-583.
DOI:10.5762/KAIS.2018.19.12.574
 14. Jang TJ, Moon M.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4): 344-352.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15. Ahn MK.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ilitary duty plan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93-102.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93>
 16. Jeong YJ, Lee HS, Kim KS. The effects of self leadership and self concept through the self leader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13(3): 277-293.
 17.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05; 35(6):1091-1092.
 18.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19.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20.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14(2): 63-74.
 21. Lee S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2):333-348.
 22.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23. Manz CC. Sims HP. *Business without bosses: How self-managing teams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5.
 24. Yang HM. Effect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work outcome: Focused on the nurs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11):87-9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087>
 25. Park JH, Kim HS.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9;16(11):125-144.
 26.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27. Kim NH, Park SY. Effect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20):215-23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0.215>
28. Yeom EY.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20-330.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20>
29. Lee MR, Kim MJ.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6):197-20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30. Lee EJ, Kim HJ, Park EB, Park JH, Jeong MJ, Jeong JH.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1): 263-27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263>
31. Kim KE, Le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0):885-89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32. Kwon JH, Choi BS.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5):297-304.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297>
33. Moon M, Kim 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7; 42(2):162-169.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7.42.2.162>
34. Park HH, Kim SY.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6;10(6):369-378. DOI: <https://dx.doi.org/10.21184/jkeja.2016.12.10.6.369>